

일반논문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networked citizen)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송경재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이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여 ICT를 잘 사용하는 시민들을 네트워크화된 시민으로 규정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치참여 간의 인과성을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작성되었다. 연구 방법론은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이메일 설문조사를 통한 계량적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였다. 연구결과 첫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신뢰는 일본이 높은 반면, 호혜성 규범은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정치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일반화된 신뢰 변인이었다. 셋째, 한국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분석에서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은 공적신뢰가 낮을수록 적극참여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관한 고민을 던져주었다. 넷째, 일본의 관습적,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 이웃과의 교류는 중요한 정치참여 변인임을 확인했다.

주제어 : 네트워크화된 시민, 사회적 자본, 정치참여(관습적/비관습적), 한국, 일본

## 1. 들어가며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은 개인 간의 협력을 촉진하여 사회 생산성을 높이는 신뢰와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형성 등 사회적 관계에서 발생하는 공공재적인 자산을 지칭한다(Chadwick 2006; 이동원·정갑영 외 2010,

\* 이 논문은 2014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4S1A5A8018665). 본 연구에서 일본의 ICT 환경과 사용실태에 관한 자료를 주신 아이치가쿠인대학 법학부(愛知學院大學 法學部) 우메카와(梅川正美)교수와 기후게이사이대학(岐阜經濟大學)의 김광욱(金光旭)교수께 감사드린다.

12-13; Putnam 2000; Diamond 1999). 정치학에서 사회적 자본을 소개한 이는 퍼트남(Putnam)으로, 그는 1993년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와 2000년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등의 저서에서 이탈리아와 미국 사회적 자본을 분석하여 정치학계에 사회적 자본 연구 붐을 일으켰다. 퍼트남은 사회적 자본의 구체적 결과물이 정치적인 성과 특히 민주주의 발전, 시민 사회 성숙, 공동체와 시민참여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주장했다(Putnam 1993, 167-173; 송경재 2015에서 재인용). 이후 사회적 자본 연구는 정치학뿐만 아니라, 사회학, 행정학, 언론정보학, 경제학, 지역학 등의 주요 연구주제가 되었으며, 특히 OECD와 EU 등 국제기구에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의 동력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공동체 활성화와 시민참여, 시민사회 성숙을 위한 방안으로 많은 조사와 연구가 수행되었다.

한편, 사회적 자본은 21세기 인터넷을 위시로 한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이하 ICT)이 발전하면서 새로운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전통적인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 논의가 오프라인을 기반으로 해서 발전했다면, 최근에는 ICT를 토대로 하는 사회적 자본 축적과 쇠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다. ICT기반의 사회적 자본 연구는 크게 낙관과 비관적 전망으로 발전하고 있다.

첫째, 낙관적 전망은 ICT의 사회적 자본 강화론이다(Wellman 2001; Quan-Haase and Wellman 2004). 이 입장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ICT가 이해관계를 조절하고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편리한 도구임에 주목한다. 인터넷의 저렴한 거래비용(transaction costs)은 사회적 접촉기회를 확장하고 지역 및 집단기반의 공동체 구성에 도움을 준다. 엘리스와 스테인필드, 램페(Ellison, Steinfeld and Lampe 2007)는 페이스북이 온라인상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 유형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를 ‘온라인상에서의 볼링(bowling online)’으로 표현했다. 이들은 온라인에서의 새로운 사회적 자본 축적을

통해 결속형 사회적 자본(bonding social capital)을 새로운 형태의 사회적 자본으로 바꿀 수 있다고 증명했다(Steinfeld et al. 2009, 245-254).<sup>2)</sup>

둘째, 비관적 전망은 ICT가 사회적 자본을 쇠퇴시킬 것이라는 입장이다. 퍼트남(Putnam 2000)이 논의한 바와 같이, ICT는 엔터테인먼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 사회관계를 약화시킬 것이라는 주장이다. 그는 *Bowling Alone*에서 미국의 전통적인 가족과 클럽 등의 공동체 해체에 주목하면서, TV와 전화 등의 ICT가 오프라인 공동체를 해체하여 시민사회가 쇠퇴할 것을 우려했다. 이에 크라우트 등(Kraut et al. 1998)은 미국의 실증 데이터를 바탕으로 인터넷이 사회적 자본에 부정적이란 연구를 발표했다. 이들은 인터넷 과몰입이 기존 오프라인 면대면(face to face) 상호작용을 약화시키며, 사회적 자본의 공동체간의 강한 연계(strong ties)를 약화한다고 경고했다.

이러한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ICT의 사회적 자본에 주목하여 ICT를 잘 사용하는 시민들을 네트워크화된 시민(networked citizen)으로 조작화하고 사회적 자본 형성과 정치참여 간의 인과성을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이다.

연구에서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고자 하는 이유는 첫째, 한국과 일본은 모두 ICT수준이 높은 국가이자, 동일한 동북아시아의 지역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다. 물론 정치문화와 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두 국가의 비교분석을 통해서, 각 국가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존재하며, 일본의 사회적 자본수준이 높다는 연구결과가

---

2) '온라인상에서의 볼링(bowling online)'이란 표현은 엘리스과 스테인펠드, 램페가 퍼트남이 미국의 사회적 자본의 쇠퇴의 한 증거이자 책의 제목이기도 한 *Bowling Alone*과 대비되는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용했다.

다수 존재한다(이동원·정갑영 외 2010; Fukuyama 1999). 국내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 비교연구로는 류태건(2014, 549-575)과 박희봉 등(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547-575)이 동북아시아 지역 시민사회와 정치참여의 특성을 비교하면서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정치참여 간의 인과성을 분석한 바가 있다. 이들은 연구에서 국가별 사회적 자본의 특성은 내재하는 정치문화와 제도적인 차이, 시민문화 성숙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선행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단계 진전된 연구주제로서 ICT를 잘 활용하는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의 특성과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의미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연구 방법론은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한 계량적인 방법론을 적용할 것이다. 한국과 일본의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는 (주)마크로빌 엠브레인에 의뢰하여 성, 연령 등을 반영한 다층적 할당추출법으로 표본을 추출했다. 대상 기간은 2016년 4월 27일~29일까지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설문자료는 사회과학 통계프로그램인 SPSS ver. 22.0을 이용하여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회귀분석 등으로 분석했다.

논문구성은 다음과 같다. I 장은 문제제기로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사회적 자본의 등장 배경과 연구목적, II 장은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조작적 정의와 사회적 자본 논쟁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III 장은 연구절차를 소개하고 표본과 변수의 조작화를 시도했다. IV 장은 통계분석으로 연구가설을 검증하고, 마지막 V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networked citizen)의 사회적 자본 특성과 정치참여 행태의 함의에 대해 분석하도록 한다.

## 2. 네트워크화된 시민과 사회적 자본

### 1) 네트워크화된 시민

통계에 따르면, 상시적으로 네트워크에 연계된 대륙별 인터넷 이용자수(국제전기통신연합(ITU) 기준)은 2016년 말 기준 32억 9,800만 명에 달한다. 이들 외에 일시적인 접속자를 합한다면, 전 세계 절반의 인구가 네트워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인터넷 통계정보 검색시스템 <http://isis.kisa.or.kr/statistics/?pageId=050400#> 검색일: 2017년 8월 27일). 여기에 최근 등장한 소셜 미디어(social media)는 네트워크 연계성(network connectivity)으로 더욱 복잡한 네트워크를 만들고 있다.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ICT 발전으로 새롭게 등장한 시민이다. 정보사회학자 카스텔(Castells 2001; 2009)은 20세기 후반 ICT가 발전하면서 디바이스(device)와 사람이 연계된 새로운 네트워크사회가 될 것을 예견하였다. 그의 예언은 초기에는 너무 희망적인 정보사회 낙관론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카스텔의 예언에는 초기 인터넷 연구자들의 관심과 사회변화를 감지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었다. 이 현상을 분석한 라인골드(Rheingold 1993)는 *virtual community*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시민의 집합행동에 주목했다. 그는 1980년대 중반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역에서 WELL이라는 BBS(bulletin board system)를 운영하면서, 정보가 유통되는 네트워크의 실시간 쌍방향 상호작용과 호혜성 그리고 신뢰기반의 공동체적인 특성을 분석했다.<sup>3)</sup>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ICT에 연계된 네트워크화된 시민(networked citizen)이다.

초기 정보 정치학 연구에서는 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에 따라 낙관과 비

<sup>3)</sup> BBS는 초기 PC 통신과 인터넷 등에 있는 전자게시판을 지칭한다.

관적 시각으로 구분했다(김용철·윤성이 2005). 낙관적 입장은 기술결정론(technological determinism) 시각과 연계되어 ICT가 표현의 자유나 공동체 정신, 시민들의 협력과 공유의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았다(Webster 1995). 한편 비관적인 시각도 존재하는데 이들은 ICT가 시민들의 민주적인 권능이 침해될 것이고 권위주의 정권에서는 구(舊)체제를 유지하고 시민감시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Washington Post 2015년 3월 30일). 그리고 정치과정에서도 민주주의 강화효과는 크지 않고, 전통적 공동체를 해체하고 고립화된 개인을 양산하여 시민의 정치적 관심은 하락할 것이라고 주장한다(Sunstein 2007; Kalathil and Boas 2002).

이처럼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시민과 민주주의의 미래는 낙관과 비관이 교차하지만 최근에는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이 보다 참여적이고 적극적인 공동체 활동을 수행한다는 연구가 다수 발표되고 있다. 앞서 네트워크로 연계된 공동체 삶의 장점을 분석한 라인골드(Rheingold 2002)는 집합행동에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현명한 군중(smart mobs)에 주목했다. 그는 2000년대 초반에 나타난 영국의 휘발유 가격 인상 반대 시위와 부패한 에스트라다(Estrada) 정권을 무너뜨린 필리핀 시위, 한국의 인터넷 팬클럽 활동을 보고 ICT로 무장한 현명한 시민이 민주주의를 강화할 것으로 보았다.

이후 본격적인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의 민주주의 강화 연구는 주로 미국을 중심으로 발전했다. 대표적으로 사회학에서 논의가 시작된 세대연구와 결합하면서, 1990년대 이후 X세대와 Y세대 논쟁이후 네트워크를 어렸을 때부터 사용하면서 새로운 정치행위를 하는 세대를 분석하고 있다. 탭스콧(Tapscott 2008)은 미국사례와 실증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1980년대~1990년대에 태어난 세대가 과거와 다른 정치활동을 하고 있으며, 가장 주요한 것이 ICT를 기본으로 하며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정치정보 소통이라고 보았다. 그는 이러한 세대를 디지털 네이티브(digital native)라고 규정했다. 디지털 네이티브는 전통적 방식의 1차적 또

는 2차적 커뮤니티를 구성하기 보다는 네트워크에서 공동체를 구성하고 과거와 다른 정치·경제·사회 행위 패턴을 가진다고 보았다.

발전된 ICT환경에 태어난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오프라인에서 활동하는 시민의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 네트워킹이라는 차원에서 기존 시민과 다른 차별성도 발견된다. 무엇보다 ICT에 익숙한 젊은 층의 투표참여가 2008년과 2012년의 미국 대선결과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었다는 연구가 활발하다. 한중우(2012)는 사이버 공동체에서 과거 토크빌(Tocqueville)이 상정했던 자유로운 시민참여와 협력의 미국 초기 민주주의와 유사성에 주목했다. 그리고 새로운 정치공동체의 가능성과 함께 한국과 미국의 ICT로 네트워킹된 젊은 시민들의 역동적인 참여 사례를 비교분석했다. 그는 분석에서 핸드폰 보이(hand phone boy)로 불리는 젊은 층이 한국 2002년 대선과정에서 역동적인 정치참여를 보여주었으며, 디지털 유권자를 사로잡은 오바마의 소셜 미디어 정치(social media politics) 캠페인의 영향력에 주목했다.

또 다른 네트워킹된 시민 연구자는 싱클레어(Sinclair 2012)이다. 그녀는 소셜 미디어와 같은 네트워크가 확장되면서 ICT와 시민이 결합된 형태를 소셜 시티즌(social citizen)으로 표현했다. 사회관계(social relation)에서 사람을 기반으로 하는 관계망을 분석대상으로 한 싱클레어는 사회관계가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정치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소셜 시티즌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보았다. 싱클레어는 ICT 발전에 따라 전통적인 공동체 사회와는 달리 친구, 직장, 이웃 등의 새로운 네트워크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취미와 이해를 같이 하는 집단이 과거에 비해 새롭게 구성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소셜 미디어와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이 바로 네트워킹화된 시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 맥락에서 네트워킹화된 시민은 2가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카스텔(Castells 2009)과 라인골드(Rheingold 2002), 싱클레어(Sinclair 2012), 이승민(2013, 161-180)이 지적한 바와 같이, ICT 발

전을 통한 새로운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이란 의미와 탭스콧(Tapscott 2008), 한종우(2012), 로더(Loader 2007) 등이 제기한 젊은 세대라는 교집합을 가진다. 즉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ICT 네트워크와 연계된 젊은 세대에 더욱 잘 발견되는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싱글레이어의 정의를 엄밀히 차용하여, 네트워크로 연계된 시민들 중에서 “가장 진화된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ICT인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기기를 활용하는 20~40대의 시민”으로 조작화(operationalization)하고, 이를 네트워크화된 시민으로 엄밀하게 재규정할 것이다.

## 2) 정보 네트워크사회의 사회적 자본

정보 네트워크사회에서 사회적 자본 축적과 쇠퇴에 관한 논쟁은 크게 2가지이다. 첫째 ICT의 사회적 자본 강화론과 쇠퇴론으로 분화된 효과분석과 둘째, 세부적이며 상황에 따른 유연한 분석을 시도하는 구성론적 분석이 그것이다.

첫째, 사회적 자본 효과분석은 ICT가 정치적 참여기회를 강화(또는 쇠퇴)하여 사이버 공동체와 오프라인의 현실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또는 감소)할 것이란 논의이다. 강화론은 오프라인 공동체가 해체되는 현대사회에서 사이버 공동체 형성은 저렴한 거래비용으로 시민들의 사회적 접촉의 기회를 다양하게 해주고 지역 및 집단 기반 등 여러 공동체 구성에 편리한 도구가 된다고 강조한다(Ellison, Steinfield and Lampe 2007; Steinfield et al. 2009, 245-254). 미국의 소셜 미디어 이용자들은 정보교환과 토론에 적극적이고 효능감도 높으며 소셜 미디어를 이용한 정치정보 검색을 많이 할수록 사회적 자본 축적과 형성에 인과성이 있다는 연구도 발표되었다(Zúñiga, Jung, and Valenzuela 2012, 319-336). 그리고 선거캠페인에서의 사회적 자본 연구도 있는데 이들은 주로 상호작용성이 강한

웹 2.0 기반 소셜 미디어(대표적으로 페이스북)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정치 참여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Dimitrova et al. 2014; Theocharis and Lowe 2016에서 재인용). 국내 연구로는 온라인 사회적 자본이 인터넷과 현실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류정호 2010), 트위터와 페이스북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소셜 미디어 유형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태를 구분하고 각각의 정치참여 차이 연구(신소연·이상우 2012), 소셜 미디어 사용자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이 시민참여와 양(+ )의 인과성이 있음을 실증적으로 증명한 연구(송경재 2015) 등이 있다.

이에 비해 쇠퇴론은 사회적 자본이 공동체의 파편화와 네트워크를 훼손할 것이라 주장한다. 나이와 힐리거스, 어브링(Nie, Hillygus, and Erbring 2002)은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시민들이 여러 다양하고 새로운 이슈에 빠져 전통적인 이웃과의 교류가 저하해 지역 결사체 정치의 영역은 쇠퇴할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인터넷의 역설(Internet Paradox)”이란 논문에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과 ICT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 학자들은 ICT가 사회적 관계와 참여도를 약화하고 공동체를 훼손할 것이란 실증적인 분석을 제시하였다(Kraut et al. 1998). 제노스와 모이(Xenos and Moy 2007)는 사회적 자본 강화론 연구가 지나치게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은 ICT의 사회적 자본 쇠퇴 연구도 발견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이론을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 사례를 분석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둘째, 강화와 쇠퇴라는 효과논쟁과 달리 ICT의 사회적 자본의 역할에 대한 세분화된 분석을 통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있다. 구성론적 재해석을 강조한 학자들은 기존 ICT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효과분석이 간과했던 특수성과 다원화된 상황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먼저, 오프라인 공동체의 보완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 연구로 쿠안하세와 웰만(Quan-Haase and Wellman 2004)으로 오프라인의

면대면 접촉이 사이버 공간으로 확장되어 사회적 자본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동시에 축적될 것으로 주장했다. 이들은 지역 사이버 커뮤니티 활동이 커뮤니티 내부 사회적 자본만이 아니라 현실 시민참여, 수평적인 네트워크 형성을 보완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했다. 하지만 이와 달리 ICT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오프라인 공동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보완연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들은 국가와 사회의 성격, 그리고 분석대상마다 다른 사회적 자본의 형태가 존재함을 지적하고, 이러한 것도 ICT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라고 보았다. 최근에는 ICT로 연계된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에 관한 연구도 실제적인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축적효과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Theocharis 2015).

이상의 연구흐름은 각각 장단점이 존재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ICT의 사회적 자본의 효과분석을 넘어서 각각의 사회적 특성과 조건에 따른 특징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연구는 다분히 ICT의 구성론적인 해석의 시각에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을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의 차이를 살펴보고 그 효과로서 정치참여의 특성을 추출하고자 한다.

### 3. 조작화와 가설

본 연구는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행태를 분석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20~40세대 시민을 분석했다. 연구절차는 먼저,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개념 조작화에 따른 구분과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설문문항을 구성하였다. 다음 연구의 엄밀성을 기하기 위해, 2015년 12월 일본 큐슈대학교(九州大學)의 한일국제학술회의에서 연구설계를 발표하

여 일본 정치학자들의 자문을 구했다. 그 결과 당초 연구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연구로 설계되었으나, 일본 ICT 사용실태와 관련한 토론에서 아이치가쿠인대학 법학부(愛知學院大學法學部) 우메가와(梅川正美)교수와 기후게이사이대학(岐阜經濟大學)의 김광욱(金光旭)교수의 자문을 받아 20~40세대만을 한정하여 분석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일본의 ICT 환경이 개선되기는 했으나 주로 40대까지 한정된 것이고 실제 50대는 스마트폰은 커녕 피쳐폰도 사용하지 않은 이들이 다수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네트워크화된 시민에 관한 연구라면 더더욱 50대 이상은 제외할 필요성에 대한 사전 토론을 실시했다. 이에 연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개념을 정교화하여 1) 첨단 ICT인 소셜 미디어와 스마트 기기에 네트워크화 되고, 2) 이를 활용할 수 있는 시민으로 한정하였다. 이를 반영하여 2016년 4월에 한국과 일본에서 이메일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사회적 자본을 측정하기 위한 변인과 측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사회적 자본의 3대 구성요소별로 문항을 설계했다. 이를 위해 선형 사회적 자본과 관련한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s Survey)를 참조하였고 세부 구성변인은 미국 종합사회조사(General Social Survey), 한국 종합사회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퓨리서치 센터(Pew Research Center)의 설계를 참조하였다.

첫째, 사회적 자본의 핵심이랄 수 있는 신뢰는 사회적 관계에서 다른 사람의 행동이 자신의 후생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하는 행위이다(이동원·정갑영 외 2010 33-34; 이재신·이영수 2012; Fukuyama 1999). 신뢰는 일반적으로 사회를 구성하는 개인과 개인 사이에 형성되기도 하지만 대상에 대해서 형성되기도 한다. 우슬래너(Uslaner 2010)는 신뢰의 특성을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여 일반화된 타인신뢰와 공적신뢰로 구분한다. 선행 연구와 사회적 자본의 측정에서는 이러한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주변 사람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와 공적신뢰를 주요한 측정변인으로 설정한다(송경재 2010; 2015).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의 설문 내용을 반영하여 1) 일반화된 타인신뢰,<sup>4)</sup> 2) 역대정부(또는 내각) 신뢰<sup>5)</sup>로 측정했다.

둘째, 호혜성에 기초한 규범은 타인을 위한 선의의 행동이 언젠가는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기대감이다. 때문에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한 결정보다는 사회의 공동체성 또는 타인을 위한 사회적 규칙에서 호혜성 규범은 형성된다(Putnam 2000). 호혜성은 보상이 미래의 불특정한 시기에 되돌아오며, 미지의 타인으로부터 주어질 수도 있다는 가정에서 성립되는 개념이다(Newton 2009; 이동윤·정갑영 외 2010). 사회적 자본의 호혜성 규범을 측정하는 변인은 자원봉사, 범죄신고, 준법, 공정성, 공동체성 등을 측정한다(Paldam & Svendsen 1999). 연구에서는 호혜성 규범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존변인을 보완하여 1) 사회적 호혜성의 규범<sup>6)</sup>, 2) 준법정신<sup>7)</sup>, 3) 공동체와 개인이익 중요성<sup>8)</sup>을 측정했다.

셋째,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로서 간주되는 네트워크 활동은 호혜성 규범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사회적 활동 속에서 형성된다. 때문에 네트워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는 다른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로서 종교나 노조, 스포츠 단체 등의 참여를 제시했다. 퍼트남(2000)은 미국의 50개주의 네트워크 측정은 커뮤니티의 교류여부를 주요한 지표로 측정한 바가 있다. 커뮤니티 활동은 주로 주변인들과의 교류의 정도에 따라 측정할

- 
- 4) 귀하께서는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이나 지나가는 사람들을 신뢰하십니까?(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척도)
  - 5) 한국은 귀하께서는 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를 어느 정도 신뢰하십니까?(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척도). 일본은 귀하께서는 현 내각을 포함한 역대 내각을 어느정도 신뢰하십니까?(1=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척도).
  - 6) 귀하께서는 출근하는 길이나 일하는 중에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이 있다면, 아무런 대가없이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1=전혀 그렇지 않다, 4척도)
  - 7) 귀하께서는 지나가는 도중에 범법행위를 발견하실 경우 신고를 하시는 편입니까?(1=전혀 그렇지 않다, 4척도).
  - 8) 귀하께서는 본인이 속한 공동체의 이익과 개인의 이익이 충돌할 경우 어느 쪽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1=개인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5척도)

수 있고 몇 곳의 커뮤니티에 참여하는지도 측정 변인으로 사용된다(이재신·이영수 2012, 67; 송경재 2015에서 재인용).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들과의 네트워크의 교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퍼트남의 선행 조사를 활용하여 1) 주변 이웃들과의 네트워크 정도<sup>9)</sup>를 측정하였다.

넷째, 이상 사회적 자본 연구변인을 바탕으로 통제변인은 성, 연령, 학력, 소득 등의 4가지 변인을 설정했다. 알려져 있다시피, 시민의식과 정치행위를 하는데 있어 사회경제적 요인은 중요한 변인이다(Lipset 1963). 이에 성과 연령, 학력, 소득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와 종속변인인 정치참여의 유형 간의 인과성을 측정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자본변인과 통제변인을 적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의 함의를 추출하기 위하여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으로 정치참여를 측정했다. 정치학에서 참여범주는 너무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나타난다(이승중·김혜정 2011). 제도화와 관습화 그리고 참여 범주 등 구분으로 정치참여 변인을 측정할 수 있다. 고전적인 구분으로는 패이트먼(Pateman 1970)의 참여단계와 형태에 따른 구분이 있고, 시민 활동양태를 기준으로 한 구분도 존재한다(Barnes & Kaase 1979). 최근에는 선행 참여방식과는 차원이 틀린 저항적 참여(Norris 2011)에 대한 논의도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다양한 정치참여의 유형 중에서 본 연구는 선행 연구 문향을 참조하여 반즈와 카아스(Barnes & Kaase 1979, 152-157)가 구분한 정치행위에 있어서 제도적인 경로(institutional channels)에 따른 참여 방법인 관습화 정도의 참여를 측정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질문 문항은 1) 투표와 같은 관습적인 정치참여<sup>10)</sup>, 그리고 2) 촛불 집회나 시위에 참여하는 비관습적 정치참여<sup>11)</sup>를 측정하였다.

9) 귀하께서는 평소에도 주변 이웃(또는 아파트 주민)들과 얼마나 교류하십니까?(1=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4척도)

10) 귀하께서는 가장 최근 선거에 투표하셨습니다가?(1= 투표하지 않았다)

11) 귀하께서는 자신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거리시위나 촛불시위 등에 참여

이상의 독립변인과 통제변인, 종속변인을 반영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했다.

가설 1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1-1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신뢰는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1-2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호혜성 규범은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1-3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네트워크는 각각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은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1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은 관습적 정치참여(투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2-2 :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은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4. 분석

### 1) 표본 개요

우선, 조사대상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한국이 624명, 일본이 253명이다. 한국은 성별로는 남성 312명(50.0%), 여성 312명(50.0%)이다. 연령은 19세~29세 이하 184명(29.5%), 30대 213명(34.1%), 40대 227명(36.4%)로

---

하신적이 있습니까?(1=전혀 없음, 4척도)

구성되었다. 일본은 남성 120명(47.4%), 여성 133명(52.6%) 이다. 연령은 만 19~29세 97명(38.3%), 30대 91명(36.0%), 40대 65명(25.7%) 이다. 자세한 표본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표본 개요

구 분		한국 네트워크화된 시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	
		빈도	%	빈도	%
합 계		624	100.0	253	100.0
성	남성	312	50.0	120	47.4
	여성	312	50.0	133	52.6
연령	만19~29세	184	29.5	97	38.3
	30대	213	34.1	91	36.0
	40대	227	36.4	65	25.7
최종 학력	고졸미만	7	1.1	16	6.3
	고졸	96	15.4	66	26.1
	대재/대졸	463	74.2	154	60.9
	대학원제 이상	58	9.3	17	6.7
가계 소득	200만원/20만엔 이하	80	12.8	81	32.0
	201~400만원/21~40만엔	217	34.8	72	28.5
	401~600만원/41~60만엔	211	33.8	39	15.4
	601~800만원/61~80만엔	77	12.3	13	5.1
	801만원/80만엔 이상	39	6.3	48	19.0

## 2)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 차이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 중 신뢰변인을 교차

분석(cross tabulation)하여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 결과, 일반화된 신뢰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 간의 통계적 유의성이 존재한다(Pearson  $\chi^2=56.673$ ,  $p=0.000$ ). 특히 한국에 비해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이 통계적인 차이가 확인될 정도로 길에서 마주치는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신뢰수준이 높은 것으로 도출되었다. 이를 두 집단으로 단순 비교해도 한국의 일반화된 신뢰가 11.7%에 불과했으나, 일본은 39.1%로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표 2〉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일반화된 신뢰 차이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합계
	전혀 신뢰하지 않다.	별로 신뢰하지 않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한국	122 (19.6%)	429 (68.8%)	71 (11.4%)	2 (0.3%)	624
일본	42 (16.6%)	112 (44.3%)	87 (34.4%)	12 (4.7%)	253
전체	74 (8.4%)	307 (35.0%)	449 (51.2%)	47 (5.4%)	877

\* Pearson  $\chi^2 = 56.673$   $p=0.000$

다음은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적신뢰 차이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통계적인 유의성이 확인되었고, 한국과 일본의 공적신뢰 차이는 발견되었다(Pearson  $\chi^2=16.834$ ,  $p=0.001$ ). 앞서 일반화된 신뢰와 마찬가지로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이 공적신뢰가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국은 정부에 관한 공적신뢰 수준이 낮다는 것이 선행 연구에서 확인되었는데(배송경재 2015), 이 연구에서도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의 공적신뢰 역시 매우 낮은 수준임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신뢰한다.’는 응답이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14.1%였지만,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24.1% 였다.

〈표 3〉 한국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적신뢰 차이

	공적신뢰(public trust)				합계
	전혀 신뢰하지 않다.	별로 신뢰하지 않다.	약간 신뢰한다.	매우 신뢰한다.	
한국	150 (24.0%)	386 (61.9%)	84 (13.5%)	4 (0.6%)	624
일본	67 (26.5%)	125 (49.4%)	56 (22.1%)	5 (2.0%)	253
전체	217 (24.4%)	511 (58.3%)	140 (16.0%)	9 (1.0%)	877

\* Pearson  $\chi^2 = 16.834$  p=0.001

이러 호혜성 규범의 하위 세 변인을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호혜성 차이를 살펴보았다. 교차분석을 실시한 결과,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출근길 도움과 관련한 호혜성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Pearson  $\chi^2=24.971$ , p=0.000). 앞서 신뢰분석과는 반대로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호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에 비해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사회적 자본의 호혜성 수준에서는 역관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표 4〉 한국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호혜성(reciprocity) 차이

	출근길 도움(호혜성)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23 (3.7%)	173 (27.7%)	388 (62.6%)	40 (6.4%)	624
일본	24 (9.5%)	68 (26.9%)	128 (50.6%)	33 (13.0%)	253
전체	47 (5.4%)	241 (27.5%)	516 (58.8%)	73 (8.3%)	877

\* Pearson  $\chi^2 = 24.971$  p=0.000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준법의식 차이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했다(Pearson  $\chi^2=33.892$ ,  $p=0.000$ ).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의미가 있었으나 긍정적인 응답과 부정적인 응답의 구분에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다.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범법행위 신고 변인에서 중앙값으로 수렴하는 결과가 도출되었지만,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보다 적극적인 행동성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매우 그렇다.’는 응답의 차이는 일본은 22.5%인 반면, 한국은 15.5%에 불과했다.

〈표 5〉 한국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준법의식(law-abiding spirit) 차이

	범법행위 신고(준법의식)				합계
	전혀 그렇지 않다.	별로 그렇지 않다.	약간 그렇다.	매우 그렇다.	
한국	5 (0.5%)	202 (32.4%)	320 (51.3%)	97 (15.5%)	624
일본	17 (6.7%)	70 (27.7%)	109 (43.1%)	57 (22.5%)	253
전체	22 (2.5%)	272 (31.0%)	429 (48.9%)	154 (17.6%)	877

\* Pearson  $\chi^2 = 33.892$   $p=0.000$

호혜성 규범의 마지막 분석은 공동체와 개인이익간의 선호도 차이를 통계적으로 검증했다.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동체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집계되었다(Pearson  $\chi^2=94.738$ ,  $p=0.000$ ). 특징적인 것은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동체와 개인의 이해관계에서 차이가 발견된다는 점이다. 일본은 상대적으로 개인의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고, 한국의 공동체 이익을 선호하는 경향이 발견된다. 중립적인 의견은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지만, 세부적으로 본다면 양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간의 개인이익과 공동체 이익간의 중요성은 큰 차별성이 확인된다.

〈표 6〉 한국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선호도 차이

	공동체이익과 개인이익 충돌					합계
	개인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개인이익이 조금 중요하다.	별 차이 없다.	공동체이익이 조금 중요하다.	공동체이익이 매우 중요하다.	
한국	14 (2.2%)	159 (25.5%)	202 (32.4%)	228 (36.5%)	21 (3.4%)	624
일본	37 (14.6%)	92 (36.4%)	90 (35.6%)	30 (11.9%)	4 (1.6%)	253
전체	51 (5.8%)	251 (28.6%)	292 (33.3%)	258 (29.4%)	25 (2.9%)	877

\* Pearson  $\chi^2 = 94.738$  p=0.000

마지막 사회적 자본의 변인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이웃 간의 교류 변인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다(Pearson  $\chi^2=43.759$ , p=0.000). 일본이 이웃과의 교류정도는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32.0%에 달했다. 그러나 한국의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4.1%로 1/2에 불과했다. 반면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별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매우 높은 것으로 집계되었다(51.8%) 이 결과는 통계적인 차이는 발견되지만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이웃과의 교류 네트워크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표 7〉 한국과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네트워크 차이

	이웃과의 교류(네트워크)				합계
	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별로 교류하지 않는다.	약간 교류한다.	자주 교류한다.	
한국	88 (14.1%)	323 (51.8%)	191 (30.6%)	22 (3.5%)	624
일본	81 (32.0%)	87 (34.4%)	71 (28.1%)	14 (5.5%)	253
전체	169 (19.3%)	410 (46.8%)	262 (29.9%)	36 (4.1%)	877

\* Pearson  $\chi^2 = 43.759$  p=0.000

### 3)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연구가설중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간의 관계에 관한 분석은 최소자승법(OLS)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먼저 사회경제변인인 성, 연령, 학력, 소득을 통제변인으로 설정하여 1차로 투입한 모델을 도출하고, 다음으로 신뢰, 호혜성 규범, 네트워크 변인을 순차적으로 투입하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 시민의 관습적/비관습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통제변인과 사회적 자본 변인을 투입한 모델요약은 <표 8>, <표 9>와 같다.

관습적 정치참여를 종속변인으로 한 4유형의 모델 모두 더빈 왓슨(Durbin-Watson) 계수는 2.0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아 회귀모형은 적합하다.<sup>12)</sup> 예측변인 간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가정을 진단한 결과 공차한계가 기준 값인 0.10보다 크게 나타나 다중공선성의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한국의 관습적 정치참여 모델 I 은 회귀모델의 적절성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F=10.383$ ,  $p<0.001$ ).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0.057$ 로 도출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은 성( $p<0.1$ ), 연령( $p<0.01$ )과 학력( $p<0.001$ )으로, 이를 해석하면, 남성일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학력이 높을수록 관습적 정치참여인 투표참여율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종속변수에 대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표준화 계수 는 학력이 0.217로 가장 회귀식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다음은 연령이 0.103 이다.

12) 한국의 관습적 정치참여 I 모델의 Durbin-Watson(이하 D-W) 계수는 2.009이며, 관습적 정치참여 II 모델의 D-W계수는 2.014이다. 그리고 일본의 관습적 정치참여 I 모델의 D-W계수는 1.985, 관습적 정치참여 II 모델은 2.071로 산출되었다.

둘째, 사회적 자본의 다양한 변인과 통제변인을 투입한 한국의 관습적 정치참여 모델Ⅱ는 모델 적절성은 유의했다( $F=5.454$ ,  $p<0.001$ ). 조정된  $R^2=0.073$ 으로 모델 I 보다 높았다. 종속변인에 영향을 주는 채택변인들은 일반화된 신뢰( $p<0.1$ )과 준법의식( $p<0.05$ ), 연령( $p<0.05$ )과 학력( $p<0.001$ ) 변인이었다. 통합 모형이라고 관습적 정치참여 모델Ⅱ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인 정치참여는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표준화 계수 가 높은 변인은 학력이 0.208이었으며 다음으로 준법의식 0.096, 연령 0.087의 순으로 나타났다.

셋째, 통제변인만을 투입한 일본의 관습적 정치참여 모델 I 은 회귀모델의 적절성은 유의하다( $F=4.669$ ,  $p<0.01$ ). 그리고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0.055$ 로 계산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인은 남성일수록( $p<0.05$ ), 연령이 높을수록( $p<0.1$ ), 학력이 높을수록( $p<0.01$ )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 참여는 높아진다. 표준화 계수 는 학력이 0.176으로 가장 회귀방정식에 미치는 영향이 컸으며, 성 0.143, 연령 0.107의 순이었다.

넷째, 일본의 관습적 정치참여 모델Ⅱ의 적절성은  $F=5.532$ ( $p<0.001$ )로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었다. 그리고 조정된  $R^2=0.134$ 로 모델 I 보다 높았다. 종속변인인 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주는 변인들은 일반화된 신뢰( $p<0.1$ ), 이웃과의 교류( $p<0.01$ ), 성( $p<0.05$ ), 학력( $p<0.01$ ) 변인이었다. 이를 해석하면 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은 높을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채택 변인 중에서 표준화 계수 가 높은 변인은 이웃과의 교류로 0.239이었다.

〈표 8〉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관습적 정치참여 회귀분석 요약

	관습적 정치참여(한국) I				관습적 정치참여(한국) II				관습적 정치참여(일본) I				관습적 정치참여(일본) II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상수)	1.324		11.670	***	1.122		7.359	***	1.311		7.804	***	1.176		5.818	***
사회적 자본 변인																
신뢰																
일반화된 신뢰					.059	.083	1.941	†					.081	.122	1.724	†
공적신뢰					-.030	-.047	-1.123						.049	.074	1.124	
호혜성의 규범																
출근길 도움(호혜성)					-.028	-.045	-1.073						-.020	-.034	-.464	
준법의식					.055	.096	2.296	*					.053	.093	1.386	
공동체와 개인이익 선호					-.025	-.058	-1.415						-.035	-.066	-1.086	
네트워크																
이웃과의 교류					.025	.046	1.091						.131	.239	3.407	**
사회경제 변인																
성 (1=남성)	-.055	-.070	-1.765	†	-.042	-.052	-1.308		-.142	-.143	-2.335	*	-.129	-.130	-2.169	*
연령 (3-point scale)	.051	.103	2.630	**	.043	.087	2.099	*	.067	.107	1.691	†	.018	.028	.448	
학력 (4-point scale)	.162	.217	5.296	***	.155	.208	5.069	***	.126	.176	2.862	**	.115	.160	2.676	**
소득 (5-point scale)	-.006	-.016	-.398		-.010	-.027	-.647		.006	.016	.258		-.001	-.002	-.035	
N	624				624				253				253			
F (Sig)	10.383 (***)				5.454 (***)				4.669 (**)				4.532 (***)			
Adj R2	.057				.073				.055				.134			

† < 0.1, \* < 0.05, \*\* < 0.01, \*\*\* < 0.001

다음으로,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분석 결과는 <표 9>로 요약했다. 회귀방정식의 상관관계와 다중공선성을 검증했다. 역시 4개의 모델은 모두 D-W계수가 2.0에 근접하여 잔차들 간의 상관관계는 존재하지 않고<sup>13)</sup> 다중공선성 문제 역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델 I 은 통제변인만을 투입했을 때 모델 적실성 F값은 3.846(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 0.018$ 로 집계되었다. 분석결과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연령 변인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p < 0.01$ )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의 회귀방정식에 영향을 미치는 표준화 계수 는 0.138이었다.

둘째, 한국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델 II 의 모델의 적절성은 있고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결정계수 역시 모델 I 에 비해 높다( $F = 5.077$ ,  $p < 0.001$ ; 조정된  $R^2 = 0.067$ ).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변인과 통제변인은 일반화된 신뢰( $p < 0.001$ ), 공적신뢰( $p < 0.05$ ), 이웃과의 교류( $p < 0.001$ ), 그리고 연령( $p < 0.1$ )이었다. 이를 해석하면,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공적신뢰는 낮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활발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셋째, 일본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델 I 의 적실성 F값은 3.753( $p < 0.01$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모델 설명력을 나타내는 조정된  $R^2 = 0.042$ 로 도출되었다. 그리고 채택된 변인은 성( $p < 0.01$ )과 학력( $p < 0.05$ ) 이었다. 분석결과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은 남성일수록, 학력이

---

13) 한국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I 모델 D-W계수는 1.937, 비관습적 정치참여 II 모델은 1.946으로 산출되었다. 그리고 일본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I 모델은 1.937, 비관습적 정치참여 II 모델은 1.958이다.

높을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일본의 비관습적 정치참여 모델Ⅱ의 모델 적합성을 나타내는  $F=5.637$ 로 통계적으로 유의하다( $p<0.001$ ). 그리고 조정된 조정된  $R^2$ 는  $0.168$ 로 설명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관습적 정치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 변인과 통제변인은 일반화된 신뢰( $p<0.01$ ), 출근길 도움( $p<0.1$ ), 이웃과의 교류( $p<0.001$ ), 그리고 연령( $p<0.01$ )이었다. 해석하면,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는 높을수록, 출근길의 도움은 안할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비관습적 정치참여 회귀분석 요약

	비관습적 정치참여(한국) I				비관습적 정치참여(한국) II				비관습적 정치참여(일본) I				비관습적 정치참여(일본) II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B	표준	t	Sig
(상수)	1.179		5.035	***	.551		1.780	†	1.218		5.677	***	.943		3.758	***
사회적 자본 변인																
신뢰																
일반화된 신뢰					.227	.159	3.705	***					.159	.189	2.730	**
공적신뢰					-.111	-.086	-2.070	*					.044	.053	.812	
호혜성의 규범																
출근길 도움(호혜성)					-.048	-.038	-.896						-.091	-.119	-1.674	†
준법의식					.024	.020	.484						-.029	-.040	.484	
공동체와 개인이익 선호					.054	.061	1.493						-.016	-.023	-.389	
네트워크																
이웃과의 교류					.176	.160	3.777	***					.244	.351	5.106	***
사회경제 변인																
성 (1=남성)	-.047	-.029	-.729		-.016	-.010	-.246		-.226	-.180	-2.910	**	-.210	-.167	-2.845	**
연령 (3-point scale)	.138	.138	3.455	**	.074	.075	1.800	†	.044	.056	.873		-.029	-.037	-.591	
학력 (4-point scale)	.098	.064	1.516		.066	.044	1.065		.112	.124	1.991	*	.076	.083	1.422	
소득 (5-point scale)	.007	.009	.206		.010	.014	.330		.019	.043	.680		.003	.006	.107	
N	624				624				253				253			
F (Sig)	3.846 (**)				5.077 (***)				3.753 (**)				5.637 (***)			
Adj R2	.018				.067				.042				.168			

† < 0.1, \* < 0.05, \*\* < 0.01, \*\*\* < 0.001

#### 4) 분석의 요약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사회적 자본의 특성도 다르게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정치참여적인 속성도 차이가 발견된다.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비교연구에 불과하지만 각 국가별로 사회적 자본의 차별성이 다시 확인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의 주요 변인들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첫째, 한국에 비해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신뢰는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에 비해 호혜성 규범 변인에서는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일본에 비해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네트워크 변인은 긍정과 부정응답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았지만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좀 더 중앙에 수렴하고, 일본은 분명한 의사를 표시한다는 점이 차이가 있다(‘전혀 교류하지 않는다.’ 응답 - 한국 14.1% : 일본 32.0%). 요컨대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은 낮은 신뢰와 높은 호혜성의 규범 수준을 가지고 있으며 일본은 높은 신뢰와 낮은 호혜성의 규범에서 축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10〉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 차이 요약

구분		검증	세부 분석
신뢰	일반화된 신뢰	채택 (p<0.001)	-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일반화된 신뢰 수준 높음
	공적신뢰	채택 (p<0.01)	-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공적신뢰 수준 높음
호혜성의	출근길도움(호혜성)	채택 (p<0.001)	- 한국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호혜성 수준 높음
	준법의식	채택 (p<0.001)	- 긍정과 부정응답에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은 ‘별로 그렇지 않다.’와 ‘약간 그렇다.’ 등 중앙 수렴
규범	개인과 공동체의 이익 우선	채택 (p<0.001)	- 한국 네트워크화된 시민이 공동에 이익을 중요하게 인식
네트워크	이웃과의 교류	채택 (p<0.001)	- 긍정과 부정응답에서는 큰 차이는 존재하지 않음 - 한국은 ‘별로 교류하지 않다.’와 ‘약간 교류한다.’ 등 중앙 수렴

다음으로, 주요 사회적 자본의 변인과 사회경제적 변인들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관습적인 정치참여와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로 구분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회귀분석 결과 첫째,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이며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공적신뢰는 낮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적극적이다. 둘째,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이며,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는 높을수록, 출근길의 도움은 안할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적극적이었다.

〈표 11〉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 요약

구분		통합모델의 영향 변인	세부 분석
한국	관습적인 정치참여	일반화된 신뢰 ( $p < 0.1$ ) 준법의식 ( $p < 0.05$ ) 연령 ( $p < 0.05$ ) 학력 ( $p < 0.001$ )	- 한국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인 참여(투표)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준법의식이 높을수록, 연령이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일반화된 신뢰( $p < 0.001$ ) 공적신뢰 ( $p < 0.05$ ) 이웃과의 교류 ( $p < 0.001$ ) 연령 ( $p < 0.1$ )	- 한국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시위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공적신뢰는 낮을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연령은 높을수록 적극적
일본	관습적인 정치참여	일반화된 신뢰 ( $p < 0.1$ ) 이웃과의 교류 ( $p < 0.01$ ) 성 ( $p < 0.05$ ) 학력 ( $p < 0.01$ )	-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가 높을수록, 이웃과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적극적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일반화된 신뢰 ( $p < 0.01$ ) 출근길 도움 ( $p < 0.1$ ) 이웃과의 교류 ( $p < 0.001$ ) 성 ( $p < 0.01$ )	- 일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는 일반화된 신뢰는 높을수록, 출근길의 도움은 안할수록, 이웃과의 교류가 많을수록, 남성일수록 적극적

## 5. 연구의 함의와 한계

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분석에서 다양한 정치적 함의가 발견된다. 첫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신뢰는 일본이 높은 반면, 호혜성 규범은 한국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뢰가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이 높고 한국은 낮다는 것은 선행 연구에서 한국이 저신뢰 사회라는 연구결과를 다시 한 번 확인해 주고 있다(장수찬 2007; Fukuyama 1999; 이동원·정갑영 외 2009, 151). 물론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신뢰와 호혜성 수준의 단순 비교이기 때문에 세부 층위별로 다차원 비교는 힘들 것이지만, 전반적으로 일본의 신뢰수준은 한국보다 높은 수준임을 확인했다. 이와 같은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의 낮은 공적신뢰는 정책결정권자들이 향후 정책결정과정에서 정부의 신뢰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알려준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정치참여에서 가장 중요한 변인은 일반화된 신뢰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화된 신뢰는 후쿠야마(Fukuyama 1999)의 지적과 같이 비공식적인 규범에서 나타나며 사회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한 윤활유 역할을 한다. 그런 맥락에서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일반화된 신뢰가 정치참여에 중요한 변인이 된다는 것은 신뢰와 정치참여와의 인과성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일반화된 신뢰는 문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ICT를 잘 사용하는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은 지나가는 타인에 대한 불신보다는 신뢰하고자 하는 것이 정치적인 참여효과와 연계되어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

셋째, 한국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 분석에서 공적신뢰( $p < 0.05$ ) 수준이 낮을수록 적극적 참여를 한다는 것은 한국 민주주의 수준에 대한 몇 가지

고민을 주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국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에서 공적신뢰 하락은 중요한 요인이었다. 선행연구에서도(송경재 2010; 2015; 장수찬 2007; 신소연·이상우 2012) 사회적 자본의 주요 변인 중 하나는 공적신뢰의 하락은 필연적으로 정부불신으로 연결되고 이는 시민들의 비관습적인 정치참여의 증가로 이어진다. 그리고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낮은 공적신뢰수준은 장기적으로 정치에 대한 불신과 불만의 증가와 연계되어 있다. 실제 본 연구에서도 한국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은 공적신뢰가 낮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행동으로 시위나 촛불집회에 참여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공적신뢰의 하락은 선행 연구에서 규명한 바와 같이 제도화되지 않은 참여의 위험성이 있고(Diamond 1999; Crozier, Huntington, & Watanuki 1975) 장기적으로 한국 민주주의 발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넷째, 일본의 관습적, 비관습적 정치참여에서 이웃과의 교류는 중요한 정치참여 결정 변인임을 확인했다. 일반적으로 커뮤니티 차원의 활동은 중요한 사회적 자본의 요소이다(Costa and Kahn 2003). 초기 미국의 시민 사회의 역동성을 분석한 토크빌(Tocqueville 2003)은 미국 시민들이 결사체를 구성하고 활발한 사회활동을 하는 것을 예술(Art of Association)이라고 했다. 그만큼 이웃 주민과의 교류가 활발할수록 공동의 문제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집단정체성이 정립되는데 도움을 준다. 이 연구에서 확인된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들은 ICT로 연계되어 있지만 오프라인에서의 교류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나 정치참여에 주요한 변인이 되었다. 이 결과는 과거 ICT의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인 영향이 존재할 것이란 선행연구와는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서키(Shirky 2008)는 ICT를 이용한 연계가 온라인에만 머무르지 않으며 장기적으로 현실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점을 지적한 바가 있다.

마지막으로 연구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네트워크화된 시민

의 사회적 자본을 조작적으로 정의하는데 있어 20~40세대만을 한정하여 분석했다는 문제가 존재한다. 이는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범위가 현저히 차이가 있다는 점을 감안한 통제라는 점에서 추후에 보다 확장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에서 주요한 것은 해당 국가의 시민이 정치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와 정치문화적인 변인, 제도적인 변인 등을 같이 고려해야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그 부분까지 포괄하지는 못했다. 이 부분까지 포함한다면 보다 풍부한 비교연구적인 함의가 도출되었을 것이다. 셋째,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 간의 비교분석에서 차이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첨단 ICT를 활용하는 집단만의 한정된 결과라는 부분도 한계로 작용한다. 이 연구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아니기 때문에 ICT를 사용하지 않는 시민들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특성은 다를 수 있다.

이상 한계를 반영한다면, 이 연구는 일반화를 위한 연구라기보다는 한국과 일본의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범주를 설정하고 제한된 범주 속에서 결론을 유도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과 일본의 ICT를 사용하는 세대 또는 집단들의 차이를 비교한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정치적 함의를 제공했다.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체계적인 네트워크화된 시민의 구분과 새로운 변인 투입으로 인과적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한 후속연구를 기대해 본다.

(접수 2017. 9. 24. 심사완료 10. 30. 게재확정 11. 1)

## 참고문헌

- 김용철·윤성이. 2005. 『전자 민주주의: 새로운 정치패러다임의 모색』. 서울: 오름.
- 류정호. 2010. “온라인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에 관한 연구: 온라인 사회 자본과 정치자본을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54권 3호. 5-26.
- 류태건. 2014. “동북아 4국의 시민문화 :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사회자본 비교연구.” 『동북아문화연구』. 39권 39호. 549-575.
- 박희봉·이희창·김종래·유재원·한인희·차일근·김철수·박병래. 2005. “사회자본과 정치참여 : 한·중·일 3국 수도권 주민의 의식조사 분석.” 『한국정책과학회보』. 9권 4호. 547-575.
- 송경재. 2015. “네트워크 사회, 소셜 시티즌의 사회적 자본.” 『한국정당학회보』. 14권 2호. 167-194.
- \_\_\_\_\_. 2010. “한국의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2: 사회적 자본과 시민참여 동학의 변화.” 『국가전략』. 16-4. 125-150.
- 신소연·이상우. 2012. “트위터와 페이스북 이용자들이 형성하는 사회자본 유형이 정치참여에 미치는 영향.” 『사이버커뮤니케이션학보』. 29-4. 191-232.
- 우슬러너, 에릭. 2010. 『신뢰의 힘』. 박수철 역. 서울: 오늘의책.
- 이동원·정갑영 외. 2010. 『제3의 자본』. 서울: 삼성경제연구소.
- 이승민. 2013. “스마트기기와 SNS 활용이 사회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47권 2호. 161-180.
- 이승종·김혜정. 2011. 『시민참여론』. 서울: 박영사.
- 이재신·이영수. 2012. “사회자본과 SNS.” 한국언론학회. 『한국사회의 정치적 소통과 SNS』. 61-80.

장수찬. 2007. “한국 사회의 신뢰수준의 하락과 그 원인: 국가 간 비교 분석적 관점에서.” 『세계지역연구논총』 . 25권 3호.

한종우 지음. 전미영 옮김. 2012. 『소셜 정치혁명세대의 탄생』. 서울: 도서출판 부키.

Barnes, Samuel H. and Max Kaase et al. 1979. *Political Action: Mass Participation in Five Western Democracies*. Sage.

Castells, Manuel. 2009. *Communication Powe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_\_\_\_\_. 2001. *The Internet Galaxy: Reflections on the Internet, Business, and Societ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hadwick, Andrew. 2006. *Internet Politics: States, Citizens, and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New York &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Costa, D. and Kahn, M. 2003 “Understanding the American Decline in Social Capital, 1952-1998.” *Kyklos*, 56, 17-46.

Crozier, Michael, Huntington, Samuel, & Watanuki, Joji. 1975. *The Crisis of Democracy*. New York: New York University Press.

Diamond, Larry. 1999. *Developing Democracy*.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Dimitrova, D. V., Shehata, A., Stromback, J., & Nord, L. W. 2014. “The effects of digital media on political knowledge and participation in election campaigns: Evidence from panel data.” *Communication Research*. 41(1). 95 - 118.

Ellison, Nicole B. Charles Steinfield, & Cliff Lampe. 2007, “The benefits of Facebook “friends”: Explo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college

- students' use of online social networks and social capital."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2(4).  
<http://jcmc.indiana.edu/vol12/issue4/ellison.html>. (accessed on December 18, 2014).
- Fukuyama, Francis. 1999. *The Great Disruption*. New York: Free Press.
- Kalathil, Shanthi and Taylor C. Boas. 2002. *Open Networks, Closed Regimes: The Impact of the Internet on Authoritarian Rul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
- Kraut, Robert, Patterson, Michael, Lundmark, Vicki, Kiesler, Sara, Mukopadhyay, Tridas, and Scherlis, William. 1998. "Internet Paradox: A Social Technology That Reduces Social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American Psychologist*. 53(9). 1017-1031.
- Lipset, Seymour Martin. 1963. *Political man: The social bases of politics*. New York: Anchor Books.
- Loader, Brain. 2007. *Young Citizens in the Digital Age*. New York: Routledge.
- Nie, N. H. D. S. Hillygus, and L. Erbring. 2002. "Internet Use, Interpersonal Relations, and Sociability: A Time Diary Study." In Berry Wellman, and Caroline Haythornthwaite (eds.). *Internet in Everyday Life*. Oxford: Blackwell.
- Newton, Kenneth. 2009. "Social and Political Trust." In R Dalton, & Klingemann. (eds.) *The Oxford Handbook of Political Behavior*.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Norris, Pippa. 2011. *Democratic Deficit: Critical Citizens Revisited*.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aldam, M, & Svendsen, T. 1999. *Is Social Capital and Effective Smoke Condenser?*. Social Capital Working Paper No. 11. Washington: World Bank.
- Pateman, Carole. 1970.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The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Putnam, Robert.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Schuster.
- Quan-Haase and Berry Wellman. 2004. "How does the Internet Affect Social Capital?" In Marleen Huysman, and Volker Wulf (eds.). *Social Capital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mbridge: The MIT Press.
- Rheingold, Howard. 2002. *Smart Mobs: The Next Social Revolution*. Perseus.
- \_\_\_\_\_. 1993. *The Virtual Community : Homesteading on the Electronic Frontier*. New York: Harper Perennial.
- Sinclair, Betsy. 2012. *The Social Citizen: Peer Networks and Political Behavior*.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hirky, Clay. 2008, *Here Comes Everybody: The Power of Organizing Without Organizations*. USA: Penguin Books, 송연석 옮김. 갤럭시.
- Steinfeld, C. J. M. DiMicco, N. B. Ellison, & C. Lampe. 2009. "Bowling online: Social networking and social capital within the organization." In Proceedings of the Four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munities and technologies: 245-254. New York: ACM.
- Sunstein, Cass. 2007. *Republic.com 2.0*. Princeton Universi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 Tapscott, Don. 2008. *Grown Up Digital: How the Net Generation Is Changing Your World*. McGraw-Hill. 이진원 옮김. 비즈니스북스.
- Theocharis, Y. 2015. "The conceptualization of digitally networked participation." *Social Media & Society*. 1(2). 1 - 14.
- Theocharis, Yannis and Lowe, Will. 2016. "Does Facebook increase political participation? Evidence from a field experiment." *Information, Communication & Society* Volume 19.
- Tocqueville, Alexis. 2003. *Democracy in America*. Indianapolis: Hackett.
- Webster, F. 1995. *Theories of the Information Society*. New York: Routledge.
- Wellman, Berry. 2001. "Physical Place and Cyberspace: The Rise of Personalized Networks." *International Urban and Regional Research*. 25(2). 227-252.
- Xenos, M., & Moy, P. 2007. "Direct and differential effects of the internet on political and civic engag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57(4). 704 - 718.
- Züñiga, Homero, Nakwon Jung, and Sebastian Valenzuela. 2012. "Social Media Use for News and Individuals' Social Capital, Civic Engagement and Political Participation." *Journal of Computer-Mediated Communication*. 17(3). 319-336.

The Social Capital and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Networked Citizen : Korea and Japan

*Song, Kyong Ja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social capital of the networked citizen of information society. This study manipulated citizens who use ICT and social media well as networked citizens. The research methodology is based on an e-mail questionnaire survey for citizens of Korea and Japa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social capital of the networked citizens of Korea and Japan varies by detailed variables. Second, the most important variables in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the citizens of Korea and Japan are the generalized trust. Third, it was confirmed that the unconventional participation of Korea was a result of a fall in public trust. Fourth,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Japanese networked citizens is important for the interaction with neighbors.

Key Words : Networked Citizen, Social Capital, Political

Participation(conventional/unconventional), Korea, Japan